

하이데거 철학으로 본 오정희의 「동경」 연구

심재호(우석대)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과 오정희의 「동경」 속 ‘시간 죽이기’
3. 「동경」 속의 비본래적인 삶
 - 1) 내던져진 자의 일상
 - 2) 불안에서 오는 공포
 - 3) 시간 죽이기의 상징
4. 나오는 말

<국문 초록>

문학작품은 작중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 선악의 문제, 진리의 본질, 영혼, 자아의 정체성, 신의 존재 등등 이른바 전통적인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답론을 담고 있다.

하이데거의 철학 이전에는 존재 보편성에 중심을 둔 철학들이 대부분이었다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논의된 존재론은 일반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로서의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구체적인 삶(실존)을 사유의 중심에 놓고, 거기에서부터 존재의 의미를 구명하는 존재론으로, 보편성이 아닌 ‘개별화의 문제’로 집중된다.

하이데거는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문제시하는 존재가 ‘현존재’라고 말한다. ‘존재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가장 큰 문젯거리로 삼고 있는 존재자’가 ‘현존재’이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뜻으로 규정한 ‘현존재’는 오정희 소설 속의 주인공들과 닮아 있다. 즉 문는

‘내’가 물음 밖에 있으면서 나 이외의 모든 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존재론이 아니라, 나를 물음 속에 넣어서 나 자신의 존재를 구명하려는 것이다. 때문에 현존재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오정희 소설에 나타나는, 자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거부, 죽음에 대한 인식, 일상에서의 탈출과 회귀,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 등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론적 질문과 양심으로서의 대답, 비본래적 혹은 본래적 삶, 죽음으로의 회귀, 불안 또는 두려움과 닮아 있다. 그러므로 하이데거 철학을 바탕으로 오정희의 소설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오정희의 소설 「동경」 속 주인공들의 삶을 ‘일상’, ‘공포’, ‘죽음의 상징’으로 나눠서 살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비본래적 삶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일상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일상성은 죽음을 덮어버린다. 일상인들에게는 일어나지만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 즉 죽음이다. 죽음은 막연하게나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면서도 섬뜩하기에 일상인들은 우선 거기에서 도망가는 것이다.

두 번째 공포에서는 우선 대개 일상인인 현존재가 죽음을 ‘공포’로 느끼고 거기에서 도망간다.

세 번째로 살펴본 죽음의 상징에서 죽음은 비본래적이든 혹은 본래적이든 간에 거부될 수 없는 확실한 것으로 진리가 현존재의 확신에서 드러나는 확실성이라면, ‘현존재가 죽는다’는 자기 확실성은 진리이다.

오정희 소설 속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존재론적 불안의식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지각이 인물들의 삶 속에 내재되어 각각 예민하게 느끼고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사물의 존재와는 달리 자신의 존재 기능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므로 죽음은 인간 존재의 분석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주제어 : 현존재, 비일상적, 죽음, 일상, 공포

1. 들어가는 말

철학 텍스트는 세계와 인생에 대한 객관적 진리를 기대하지만 문학 텍스트는 재미나 감동을 기대한다. 또한 철학적 텍스트는 그 내용의 진위 혹은 논지의 논리성에 의해서 평가되지만 문학 텍스트는 흔히 그것의 언어적 묘미와 그 이야기가 동반하는 감동에 의해서 평가된다.

위의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특정 독자나 문학연구자들은 문학이 과학이나 철학으로 미칠 수 없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진리를 밝힐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문학작품은 단순히 작가의 감정 표출이 아니며, 문학작품을 읽는 독자의 의도가 타자의 주관적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은 작가나 독자에게 물어보면 자명해진다. 문학창작은 극히 복잡하고 긴장된 지성을 요구하는 활동이며, 문학작품을 읽는 가장 중요한 즐거움 중 하나는 세계와 인간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기쁨에 있다.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미지의 세계와 인간에 대한 사실을 경험한다. 문학작품이 주는 감동이란 이러한 경험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다. 문학의 기능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엔 진리의 탐구에 있다.¹⁾

요컨대 세계와 인간에 대한 개연성의 파악은 곧 세계와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정보의 확장을 의미한다. 문학이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는 그 언어가 우리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흥분하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사물, 사건, 사실을 상상을 통해서나마 볼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세계와 인간을 보는 우리들의 시각을 그만큼 넓혀주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은 작중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 선악의 문제, 진리의 본질, 영혼, 자아의 정체성, 신의 존재 등등 이른바 전통적인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답론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소설 속 존재론적 불안의식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시각이 인물들의 삶 속에 내재한 죽음을 예민하게 느끼고 반응하게 한다. 인간

1) 박이문, 『문학과 철학이야기』, 살림, 2005. pp.11-13.

의 존재는 다른 사물의 존재와는 달리 자신의 존재 기능을 이해하면서 살아
가므로 그 자체가 인간 존재의 분석이기도 하다.

오정희의 작품세계는 생의 비의에 대해 예리한 인식과 독특한 형식화 작업
으로 우리 소설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1968년 「완구점
여인」으로 등단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주요 테마로서 일상의 허위
성과 삶의 비의성, 이로부터의 끊임없는 일탈욕구와 새로움의 갈구, 그리고
자기 정체성 형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설적 탐색 속에서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는 모티프 중의
하나로 ‘죽음’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오정희가 그려내고 있는 비판적 세계,
암울한 기운으로 지속되는 황폐한 세계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
를 제공한다.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들이 죽음의 의미를 중요하
게 언급해 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오정희의 작품들에 대한 평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뚜
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현은 소름이 끼칠 만큼 무섭고 섬뜩한 느낌을 주는 오정희의 소설을 ‘살
의의 섬뜩한 아름다움’으로 표현했으며, 불과 물이 뒤섞이듯 삶과 죽음이 공
존하는 세계²⁾로 해독했다.

김치수도 “삶이 수많은 환과 상처로 엮어진 것이면서도 그 안에서 생성과
소멸의 깊은 의미를 건져내고 있다”고 평함으로써 삶의 양면성을 하나의 작
품 속에 형상화했다는 김현과 같은 견해를 보였다.³⁾

김병익은 무한적 절대 세계와의 ‘단절’과 이 세계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
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 통찰로 해독하며 ‘삶의 어느 것으로도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이 오정희적 ‘전율’⁴⁾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생근은 오정희의 소설을 ‘시들지 않는 꿈과 욕망의 부름’, ‘허구적 삶에
대한 인식과 불안’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세계와 대결하려는 개인의 욕
망 표현으로 읽으며 그의 소설이 ‘삶의 진정성’에 접근해 있다⁵⁾고 파악했다.

2) 김 현, 「살의의 섬뜩한 아름다움」, 『불의 강』, 문학과 지성사, 1977.

3) 김치수, 「전율, 그리고 사랑」, 『유년의 뜰』, 문학과 지성사, 1981.

4) 김병익, 「세계에의 비극적 비전, 오정희 ‘동경」, 동서문화사, 1983.

성민엽은 권태롭고 진부한 삶 속에 빠져 있는 주인공들이 일상에서 탈출하려는 욕구와 파괴의 충동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 안에서 죽음을 감지하는 허무의 심연 상황에 빠져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⁶⁾

오정희에 대한 이들 논의는 한결같이 ‘삶과 죽음의 양면성’과 ‘성과 죽음의 모티프’⁷⁾를 강조하면서 일상 초월로서의 죽음과 삶의 원초적 에너지로서의 성, 비관적 세계 인식에 입각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통찰로 해석하고 있다.

오정희 소설의 죽음은 일상적 사건으로부터 기인하며 작품의 정서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죽음이 어떠한 극복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존재의 의미를 밝히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인간의 유한성에서 오는 존재론적 불안의식인 죽음이라는 것을 하이데거의 이론에 근거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과 오정희의 「동경」속 ‘시간 죽이기’

하이데거는 현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사람이다. 현존재의 실존론적 존재론을 가지고 일반 존재론을 위한 기초로 삼았다. 또한 전 철학사를 통해 거장 철학자들의 사상을 현상학적으로 해체하고 그들의 존재론을 실존론적으로 새롭게 정리했으며 현상학과 해석학을 현존재 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 완성했다.

서양의 존재론은 과학적 존재론, 변증법적 존재론, 실존론적 존재론으로 나눌 수 있다. 과학적 존재론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하르트만의 영원불변하는 진실 존재에 대한 ‘일반 존재론’이다. 변증법적 존재론은 인간의 퇴보, 발전 중 발전을 변증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헤겔의 「정신 현상학」이 대표적이

5) 오생근, 「허구적 삶과 비관적 인식」, 『현실의 논리와 비평』, 문학과 지성사, 1994.

6) 성민엽, 「존재의 심연에의 응시」, 『바람의 녀』, 문학과 지성사, 1986.

7) 신철하, 「성과 죽음의 고리」, 『현대문학』, 1987, 10.

다. 이 두 존재론의 사유는 보편성과 투쟁-승리를 지향한다는 명분 아래 전체론적이다. 개인은 우연적 존재자로 함몰되고, '보편성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와 반대로 실존론적 존재론, 특히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논의된 존재론은 일반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로서의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구체적인 삶(실존)을 사유의 중심에 놓고, 거기에서부터 존재의 의미를 구명하는 존재론으로, 보편성이 아닌 '개별화의 문제'로 집중된다.⁸⁾

하이데거는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문제시하는 존재가 '현존재'라고 말한다. '존재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가장 큰 문젯거리로 삼고 있는 존재자'가 '현존재'이다. '이 세상에 생을 얻어 살고 있으면서 늘 자기의 존재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묻는 존재자가 현존재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뜻으로 규정한 '현존재'는 오정희 소설 속의 주인공들과 닮아 있다. 즉 묻는 '내'가 물음 밖에 있으면서 나 이외의 모든 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존재론이 아니라, 나를 물음 속에 넣어서 나 자신의 존재를 구명하려는 것이다. 때문에 현존재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실존이란 현존재가 살고 있으면서 자기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본질'은 그의 실존에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현존재에 대한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는 '내가 무엇이나', 즉 '나의 무엇'이 물어지는 것이 아니라—그것은 물어질 수도 대답될 수도 없다— 그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질문되어야 한다.⁹⁾

이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냉철한 시선으로 응시하고, 기억 속 과거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생각을 넘나들면서 독백체의 문장으로 끊임없이 질문한다. 오정희 소설 속의 주인공과 하이데거의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내

8) 소광희,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강의』, 문예출판사, 2003, pp.17-21.

9) 소광희, 위의 책, pp.39~48.

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사유하는—에 대해 알아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삶을 사는 것과 알아가는 것은 다르다. 오정희 소설의 주인공은 어떠한 욕구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일상적으로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이해 속에서 살고 있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¹⁰⁾

오정희 소설에 나타나는, 자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거부, 죽음에 대한 인식, 일상에서의 탈출과 회귀,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 등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론적 질문과 양심으로서의 대답, 비본래적 혹은 본래적 삶, 죽음으로의 회귀, 불안과 두려움과 닮아 있기 때문에 오정희 소설에 대해 하이데거 철학을 바탕으로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동경」 속의 비본래적인 삶

오정희의 「동경」은 제15회 동인문학상 수상 작품으로 『현대문학』1982년 4월호에 발표되었다.

이 소설은 유일한 혈육이었던 아들을 잃고 정년퇴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노부부의 초여름 어느 하루 낮 시간을 통해 삶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밀가루를 함지박에 붓는 아내를 보고 식사 전 산책을 나간다. 초여름 무더위, 이웃집 계집아이는 잃어버린 만화경을 찾는다. 예정되었던 교인들의 심방이 취소되고 밀가루 반죽이 남는다. 아내는 쓸모가 없게 된 남은 밀가루로 나쁜 꿈을 모조리 잡아먹는 맥을 만든다. 틀니 때문에 예민해진 미각에 싱거운 수제비를 먹으며 그는 맛없는 국수와 아내와 틀니에 대한 노여움을 느낀다. 점심상을 물린 후 형겅에 치약을 묻혀 지팡이 손잡이 부분의 은장식을 닦는 동안 이것들에 대한 노여움이 풀린다. 언제인지 그는 졸았다. 눈을 떴을 때, 수도 검침원이 찾아온다. 시청 하급 관리인 필경사로 정년퇴직한 그는 틀니와 어울리지 않게 염색한 까만 머리이고 그의 아내는

10) 백승미, 「오정희 소설의 자아의식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9, p.23.

호호백발이다. 아들 영로는 20년 전에 스무 살의 나이로 죽었다. 그는 아내 몰래 죽은 아들이 쓰던 서랍에서 아이의 만화경을 꺼낸다. 이웃집 계집아이가 찾아와서 꽃을 꺾는다. 이들 부부에게 삶이란 나쁜 꿈과도 같다. 무서운 꿈을 꾸는 아이에게 아내는 맥을 주지만 아이는 그것을 뺨개친다. 아내는 수없이 많은 맥을 만든다. 동경은 옛사람들의 께묻거리 중의 하나인 구리거울을 말한다. 어느새 인가 이웃집 아이는 거울장난으로 아내를 괴롭히고 마침내 아내는 그치지 않는 울음에 잠기고 만다. 노년의 쓸쓸함과 죽은 아들에 대한 추억이 어느 하루 무덤고 나른한 오후에 펼쳐지고 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이란 자기 자신의 '내던져짐'과 모든 것이 자기에게 '맡겨짐'에 대해서 언제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현존재가 '시간 죽이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우선 보통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즉 '평균적 일상성'을 따라 살아간다. '대개 사람들이 그러하듯'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 밖의 세상 모든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 '잡담'을 하고, 그들을 따라 '애매하게' 행동함으로써, 서로서로 동질화 및 평균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위안을 얻는다 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일상적 삶을 '비본래적 삶'이라고 불렀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서 사는 '본래적 삶'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사람'이라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퇴락', 곧 '무너져 내림'이라고 했다. '세상사람'들은 그저 남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하고, 남들이 행동하는 대로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진정한 삶은 무너져 내린다는 의미이다. 인물들이 '반사적'으로 말하고 '수동적'으로 행동하면서 그런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분석한 '시간 죽이기'의 존재론적 구조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시간 죽이기'에 불과한 자신의 비본래적인 삶이 마치 자기가 선택하고 결단한 자신의 본래적 삶인 것처럼 위장도 하고 활기를 불어넣어 스스로를 위안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 죽이기'에 몰입하는 동안에는 살아 있음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 죽이기'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진정한 자기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

이데거는 비본래적 삶은 인간을 점차 ‘전략’시킨다고 했다.¹¹⁾

본고에서는 오정희의 소설 「동경」 속 주인공들의 비본래적인 삶을 ‘일상’, ‘공포’, ‘죽음의 상징’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내던져진 자의 일상

그는 스스로 정한 몇 가지 규칙과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성과를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겼다. 하루하루가 마치 당기지 않는 입맛으로 억지로 순간질을 하는 듯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정지할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육체와 생활을 지배하는 규칙과 리듬에 순종하는 기쁨을 느꼈다.¹²⁾ (185쪽)

일상성의 그들은 죽음을 덮어버린다. 일상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죽음은 항상 일어나는 그러나 나에게서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 사건이 막연하게나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면서도 섬뜩하기에 일상인들은 우선 거기에서 도망가는 것이다. 하지만 도리어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존재가 죽음에 던져져 있고 존재를 향하고 있다. 이러한 동안 그것이 순수한 사라짐 혹은 순수한 끝남과 차이를 가진다는 것은 확고한 사실로 일상인들에게 나타난다.¹³⁾

죽음은 무의식입니다. 산 개만도 못하다고 했어요. 지옥이란 바로 죽음 자체이며 글자 그대로 땅에 갇힌다는 뜻이지요…….

……

그가 영노를 땅에 묻은 것은 이십 년 전인가, 스무 살의 영노는 그가 살았던 세월만큼 땅에 갇혀 있다.(186쪽)

“겨우 스무 살이었어요. 스무 살에 뭘 안다고. 여드름이나 짙 나이에 세상을 뒤바꾸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요. 그애가 죽어도 우린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200쪽)

11) 김용규, 『철학카페에서 문학읽기』, 웅진하우스, 2006. pp.175~177.

12) 오정희, 「동경」, 『제3세대 한국문학13』, 1985. 이하 인용문은 이 책의 쪽수만 표기함.

13) 이관표, 「하이데거에서의 죽음과 존재의 길」, 연세대 철학과 석사논문, 2004, pp.46~47.

영노를 문었을 때 그는 그가 묻고 돌아선 것이, 미쳐가는 봄빛을 이기지 못해 성급히 부패하기 시작한 시체가 아니라 한 조각 거울이었다고 생각했다.(196쪽)

‘그’의 아들은 20여 년 전의 어느 봄날에 죽었다고 했다. ‘그’가 아들의 손에 묻은 책상에 앉아 봄으로써 아들을 환기한다. 꽃과 풀이 다를 게 뭐 있느냐고 잠초에도 너그러웠던 아들이었고, 스무 살 청춘의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공동체의 정의를 위해 몸을 던졌던 아들이었다. 이런 아들을 잃은 부부에게 죽음은 사실 늘 함께 붙어 다녔다고 할 수 있다. 참척의 슬픔은 이들 부부의 인생에 깊이 각인된 죽음에의 친화인 것이고 그것은 또한 이미 아내의 유년시절 조부의 무덤 속에 함께 묻은 맥의 기억이 현실화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죽음은 자신만의 가장 고유한 것이기에 모든 세계를 통한 연관관계를 단절하게 됨을 의미한다. 즉 죽음은 무연관적이다. 일상적인 확신에서도 다른 현존재의 죽음을 위로하거나 감정이입 할뿐 결코 그것을 대리하지 못한다. 대신 죽을 수는 있지만 한 번의 위협을 뒤로 잠시 미뤄지게 할 뿐 결코 죽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도리어 이러한 잠깐의 대리는 자기 자신의 죽음은 언젠가는 자기 자신이 떠맡아야한다는 필연성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다. 같이 갈 수도 없고 같이 깊어질 수도 없다. 거기에 대한 이해도 단지 나의 것일 뿐이고 끝내 그것이 닥치고 나면 지금같이 있는 그 어떤 것도 같이 있을 수 없게 된다. 같이 태어나지 않았고 같이 사라지지 않으면, 지금의 관계는 임시적인 것이다. 즉, 죽음 앞에서 모든 연관관계는 무이다. 죽은 이후에 그 관계성들은 사라지고, 살아 있다 해도 죽음과 나의 관계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한다. 오직 죽음은 나만의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을 뿐이며, 그 방식은 다른 존재가능들에 대한 이해인 앞선-구조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는 평생을 시청의 하급관리로 살아왔다. 상사의 지시나 그의 부서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기안하고 깨끗이 정서하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일의 거의 전부였다. 그는 글씨 쓰는 일을 좋아했고 결코 약자나 오자를 쓰지 않았다. 자신이 올린 서류가 결재가 난 뒷면 타이핑이 되어져 곧 휴지통에 버려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정확하고 반듯한 글씨에 기쁨과 긍지를 느꼈다. 그의 부서 책임자들은 그가 정리한 서류를 볼 때면 한결같이 말했다. 자넨 글씨가 좋군.

어느 날 갑자기 이빨들이 들뜨기 시작하고 잇몸이 퍼렇게 부풀어 이빨뿌리가 드러났을 때, 결국 모조리 빼고 틀니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낭패감보다 심한 배반감과 노여움을 느꼈다. 그리고 이어 위장을 비롯한 몸의 모든 기관들이 무력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의사는 말했다. 정년퇴직 후에 흔히 오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일손을 놓게 된 데서 오는 허탈감으로 육체도 긴장과 균형을 잃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년병이라고나 할까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반적 현상이라는 의사의 말은 그에게 조금도 위안을 주지 못했다. 하긴 시말서 한 번 쓰지 않은 그도 정년이 되자 시간과 자리를 적당히 매우고 빈둥빈둥 보낸 사람들과 똑같이 궁둥이를 채어 밀리지 않았던가. 오래된 청사의 어둡고 환기 안 되는 방에서 몇 십 년을 불평없이 순응하며 살아온 그도 틀니에만은 좀체 익숙해지기 어려웠다. 단단하고 차가운 이물질이 연한 잇몸을 옥물고 조이는 느낌에 대한 저항감을 지울 수 없었다.(188쪽)

시청 하급공무원에서 정년퇴직한 ‘그’가 정년에 이어 아침저녁으로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늙고 틀니 끼운 초라한 모습을 보아야 하는지라, ‘그’에게는 어떤 종류의 거울이든 그리 달가운 존재가 아니다. ‘그’는 정년으로 사회적 자아가 이미 거세되었고 동시에 신체적 자아도 틀니를 박아 겨우 지탱한다. 조락의 인생 황혼기에 이르러 죽음이란 최후의 거세를 남겨놓고 있는 처지일 뿐이다. 때문에 거울은 죽음에의 강박을 상기시키는 공포의 대상이다.

여기서 ‘그’의 죽음에 대한 강박증은 아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정년 후에 찾아온 무력증이 정년병이라는 의사의 진단까지 받는다. 치과에서의 틀니 치료가 환기하는 것이 병리적 징후임도 알 수 있다. 주인공 ‘그’는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불평없이 순응하며 평생 사유서 한 장 써 보지 않은 성실 근무자이고 정확하고 반듯한 필체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매우 빈틈없는 사람이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그’는 현재 정년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다. 현실 원칙에 충실했던 모범 공무원의 일상이란 의무감과 조직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개인은 억압으로 점철돼 있었을 것이 뻔하다. 그래서 억압된 것의 회귀가 정년병의 증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¹⁴⁾ ‘그’의 이성이 긴장의 연속인

사회라는 팽팽한 줄에서 놓여나는 데서 그는 해방감을 만끽하기보다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가 틀니에 아직도 이물감을 느끼며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다. 하긴 자로 잰 듯 규칙적인 생활로 살아와 일탈이라고는 모르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평생 동안 길들여진 의무나 속박에서 벗어났을 때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질 법도 하다.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검게 염색한 머리와 틀니를 가진 부자연스럽고 초라한 몰골의 늙은이에 지나지 않은 자기 모습에 매우 낮설어 한다. ‘그’는 결코 은빛 머리칼이 연륜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늙은이는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을 요구하는 어떤 새로운 삶을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200쪽)

과거도 떠맡지 않고 자기 자신의 본래적인 존재가능을 미래로 던지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살아간다. 그저 그렇게 일상의 삶의 문법을 따르면서 거기에서 통용되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¹⁵⁾

아내는 지칠 줄 모르고 반죽을 빚어 맥을 만들고 있었다. 늙은 여자의 잠을 어지럽히는 나쁜 꿈 무엇일까. 늙으면 누구나 잠은 얕고 꿈은 많은 법이다.(189쪽)

노년의 쓸쓸함과 죽은 아들에 대한 추억이 어느 하루 무덤고 나른한 오후에 펼쳐지고 있다. 아내는 쓸모가 없게 된 남은 밀가루로 나쁜 꿈을 모조리 잡아먹는 맥을 만든다. 이들 부부에게 삶이란 나쁜 꿈과도 같다.

2) 불안에서 오는 공포

산책길은 늘 일정했고 그는 똑같은 모양의 낮고 작은 집들이 들어찬 주택가의, 어쩌면 공포까지도 불러일으킬 정도로 단조로운 길과 풍경 따위, 망막에

14) 안숙원, 「오정희 단편소설 ‘동경’ 연구」,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 2호, 2002, p.17.

15) 이기상,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살림, 2008, p.192.

들어오는 모든 것을 오랫동안 바라보곤 했다. 관찰이나 기억을 위한 목적이 없이, 바라본다는 의식조차 없이.(185쪽)

일상인인 현존재는 죽음을 ‘공포’로 느끼고 거기에서 도망간다. 왜냐하면, 공포는 죽음을 사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삶을 다함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끝에 이르러, 일상적인 현존재는 마침내 자신의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한다. 자기 자신이 이미 아직-아님으로써 죽음을 향해 살아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일상적인 현존재이다. 이런 현존재에게 갑자기 자신의 삶과 절대적으로 반대에 속한다고 생각했던 죽음이 닥쳐오고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이다.

청년은 손수건을 꺼내 이마와 목덜미와 땀을 닦았다. 청년이 마루턱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자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가 미숫가루를 한 그릇 타왔다. 그동안 청년이 가벼릴 것을 겁내는 듯 연신 손가락으로 사발을 휘저으며 종종걸음으로 나오는 아내가 못마땅해서 그는 속으로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그러지 말아. 단지 수도 검침을 하러 다니는,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젊은이일 뿐이야.(189쪽)

22년 전에 죽은 아들 ‘영로’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아픈 상처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타인들이 모두 아들처럼 보인다. 아내는 수도계량기 검침원이 죽은 아들의 모습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에게 시원한 물이라도 마시게 하고 싶어 한다. 수도검침원 청년을 보고 죽은 아들 영로를 떠올리는 것은 아들에 대한 부모애인 동시에 죽은 자를 떠올리며 감지하게 되는 자신들의 죽음의 그림자를 예감하는 행위이다. 아내가 죽은 아들을 자꾸 떠올리고 죽은 사람들의 생각에 잠기는 것은 추상적인 죽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또 아내는 맥을 만들면서 돌아가신 조부모의 흥망을 기억하게 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내는 밀가루 반죽으로 수많은 맥을 만든다. 그러나 그럴수록 공포는 더해진다. 이웃집 계집애의 거울장난으로 아내의 공포감은 더욱더 심화된다.

점심 산책에 나선 그가 주택가 골목을 벗어나 큰길에 이르렀을 때 그는 주위를 집요하게 맴돌며 따라오는 빛무늬를 보았다. 어깨와 다리, 가슴팍에 함부로 외닿는 빛을 털어내며 눈살을 찌푸렸으나 하얗게 번뜩이는 그것이 길과 사람들 사이로 정령처럼 춤추며 뛰어다니다가 다시금 그에게로 되돌아와 얼굴에 오래 머무르자 그는 문득 얼굴이 좋아드는 공포를 느꼈다.(192쪽)

“애, 애야, 제발 저리 가. 그러지 마라.”

아내가 우는 소리를 내며 애원했으나 아이는 아내의 돌연한 공포가 재미있는지 깔깔거리며 거울을 거두지 않았다. 아내는 빛을 피해 그가 누워 있는 방에 주춤주춤 들어왔다.(202쪽)

위 인용문에서 ‘그’를 따라오는 빛무늬는 물론 아이가 혼드는 만화경의 반사 빛이다. 그것에서 ‘그’는 얼굴이 위축되는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 아이에게는 뭐든지 다 보이는 즐거운 장난감이 ‘그’의 부부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다. 그리하여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찬 아이에게는 신기한 것일 만화경이 ‘그’에게는 별로 대수롭지도 않다. ‘그’가 아이 같은 호기심에서 바라본 만화경 속의 세상은 단순한 빛의 집합과 확산일 뿐이었다. 오히려 위 인용문에 서처럼 만화경은 ‘그’에게 죽음의 공포를 안겨준다.

그것은 토우나 동경 따위 죽은 사람들의 부장품들만을 진열한 방이었다. 땅 속에 묻혀 천 년 세월을 산, 이제는 말끔히 녹을 닦아낸 구리거울을 보자 그는 자신이 아주 오래 전에 죽은 옛사람인 듯 느껴졌었다. 관람객이 한 명도 없이 텅빈 전시실에는 두꺼운 양탄자가 깔려 있어 자신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어둡고 녹녹한 회랑을 걸어 나오며 그는 잠깐 스쳐간 괴이한 기분에 대해 변명하였다.(195~196쪽)

동경(銅鏡)은 옛사람들의 껌묻거리[부장품(副葬品)] 중의 하나인 구리거울을 말한다. ‘그’가 박물관 매장문화재 전시실에서 본 시신의 부장품인 구리거울인 동경은 ‘그’에게 죽음의 비유이다. 동경은 무덤에서 출토되었다는 것만으로 죽음의 환유이다. ‘그’는 실제로 박물관에서 말끔히 녹을 닦아낸 구리거울을 보고 자신이 오래 전에 죽은 사람인 듯 느낀다. 미워하면서 관심을 갖는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인간 실존의 한계상황인 죽음은 불가피한 것, 공포스럽지만 맞닥뜨려야 할 죽음과의 동화가 이루어진 순간인 것이다.

3) 시간 죽이기의 상징

틀니라니.(188쪽)

이가 없어 ‘틀니’를 하고 있는 노인은 맛이 주는 즐거움을 모른다. 아내 역시 미각을 상실하여 ‘간장’을 타는 일을 잊는다. 또 틀니 없이는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불가능함을 의미하고, 실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또한 그의 틀니는 그가 곧 맞이하게 될 죽음의 상징이며 소멸해 가는 것, 늙어 가는 것, 죽어 가는 것의 상징¹⁶⁾이다.

아내는 열두 사람 분의 칼국수를 만들 밀가루 반죽을 준비했지만 심방(尋訪)은 취소되었다. 오랜 병을 앓던 교우(敎友)가 방금 운명을 했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위해 교회를 나서던 그들은 곧장 종합병원 영안실로 간다는 전갈이 왔노라고, 산책에서 돌아온 그에게 말하며 아내는 상기도 합지 가득한 흰 반죽덩어리에 두 손을 찢어 넣은 채 잠깐 망연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두 사람 뒤편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반죽은 입이 넓은 함지의 전으로 넘칠 듯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185~186쪽)

쓸모없어진 밀가루 반죽은 노쇠하여 고여 있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죽음에 다가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제시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별한 믿음이 생긴 것도 아니면서 아내는 교회 사람들의 심방에 응하고 아침부터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 그러나 돌연한 심방의 취소로 남아 ‘부풀어 오르는’ 밀가루는 기능을 다한 이(齒)와 같다. 이것은 조금씩 다가오는 죽음의 상황의 은유가 된다. 그들의 느슨한 삶, 고여 있는 삶은 죽음의 문제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16) 이가원, 『오정희 소설의 인물 연구』, 명지대 문창과 박사논문, 2003, p.195.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상한 짐승의 모양을 손칼로 깎았지요. 코끼리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참 이상한 모양이었지요. 맥(貊)¹⁷⁾이라던가, 나쁜 꿈을 먹는 짐승이래요.(195쪽)

청대(靑竹)처럼 자라던 아들을 죽이고 머리가 온통 세어 버렸다고요. 아내는 집에 들인 장사아치 아낙네들에게 가끔 말하곤 했었다.(189쪽)

‘그’가 죽음에의 두려움에서 머리 염색과 틀니로 버텨 보려는 노경의 안간힘을 보였다면, 아내는 자기 집 정원에 숨어들어 꽃을 꺾는 아이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과 밤마다 꿈꾸는 흉몽으로 죽음에 강박돼 있다. ‘그’의 아내는 요즘 죽은 사람들의 생각을 자주 한다고 고백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방술인 양, 밀가루 반죽으로 빚은 맥의 주술력에 기대고자 한다. 그녀가 맥을 ‘장난으로’ 만드는 것같이 ‘그’에게 변명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의미이고 사실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나나는 아내는 ‘호호백발, 앙상하게 굵은 등허리 위로 수은이 무겁게 내려앉은 모습’이고 남편의 음식에 간을 맞추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세된 여성이다. 또한 그녀는 남편과의 과거가 잘 기억나지 않을 만큼 살아온 세월이 꿈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다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부쩍 죽음의 충동에 이끌리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음에 틀림없다. 그녀의 삶은 아들의 죽음 이후 정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때 벌써 그녀의 머리가 세었다고 남편은 말한다.

잠에 빠지는 과정은 언제나 어둡신하고 한없이 긴 회랑을 걸어가는 것과도 같았다. 어쩌면 이미 혼백이 되어 연도를 걸어가는 것이나 아닐까.(194쪽)

이러한 죽음의 비유는 거울공포 외에도 잠-기수상태-밤의 악몽도 있다. 잠은 ‘그’에게 ‘어둡신한 가운데 긴 회랑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느끼는 점으로 미루어 죽음을 뜻한다.

17) 맥이라는 동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다. 포유동물로서 생긴 것은 몸통이 짧고 육중하며 목이 굵으며 발굽이 앞발에 4개, 뒷발에 3개 있고, 코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짧은 통 모양이고 윗입술이 길게 자라있다.

영노를 문었을 때 그는 그가 묻고 돌아선 것이, 미쳐가는 봄빛을 이기지 못해 성급히 부패하기 시작한 시체가 아니라 한 조각 거울이었다고 생각했다.(196쪽)

‘아들의 죽음을 한 조각 거울이라고 생각했었다.’는 문구도 요절한 아들을 승화시키려는 ‘그’의 간절한 소망에서 나온 의식적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그’에게 거울공포까지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게 된 데는 거울이 자꾸만 현재 ‘그’의 노화를 확인시켜주는 매개체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거울이란 단순히 광학적 성질에 의해 물체를 반사하는 것일 뿐인데 이것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반추하게 한다고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는 마당으로 공처럼 뛰어다니며 거울을 비쳤다. 아내는 겁에 질려 마루로 올라왔다. 거울빛은 마루턱에 늘어서 하얗고 단단하게 말라가는 짐승들을 지나 재빠르게 아내의 얼굴에 달라붙었다. 구겼다 편 은박지처럼 빈틈없이 주름살진 얼굴이 환히 드러났다. -중략-

빛은 이제 눈물에 젖은 아내의 조그만 얼굴과 그의 눈시울, 무너진 입가로 쉴새없이 번득였다. 그것은 어찌면 아득한 땅 속에 묻힌 거울빛의 반사일 듯도 싶었다.(201~202쪽)

위 인용부분은 다른 어느 작가도 따를 수 없을 만큼 감각에 의한 대상의 순간 포착이 뛰어나다는 오정희의 묘사력의 한 예로서 아이가 뒤흔드는 거울이 종당에는 아득한 땅 속에 묻힌 거울빛의 반사로 느껴질 때 그것은 죽은 아들의 영상과 겹쳐져 있다. 아이는 설마 늙은 ‘그’가 자기의 만화경을 훔친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의 아내가 구박을 하건 말건 그들 부부의 집을 드나들며 귀찮게 군다.

아이가 ‘할머니, 뭘 만드세요?’를 세 번이나 반복하며 온갖 아양을 다 떨어도 노부인은 아이를 목살한다. 이는 김병익이 말한 작가 오정희의 비극적 세계관인 세계와의 화해 불가, 허무의식 등이 비록 어린 주인공이라도 에누리 없이 적용됨을 의미한다.¹⁸⁾ 그러한 비극적 세계관은 삶 속에 죽음이 공존한

18) 김병익, 앞의 책, pp.345~354.

다는 인식이고 죽음의 허무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동경」에서 ‘땅 속에 갇힌 생명’, ‘땅 속에 갇혀 아우성치는 덧’, ‘어두한 땅 속에 문힌 거울 빛’ 등이 그것과 동케이다.¹⁹⁾ 그리고 보면 오정희는 인간을 보는 따뜻한 시선보다 무덤 같은 밀실공포에 포박된 죽음의 아우라를 통해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녀의 작품이 불가피하게 병리적 징후로 읽혀져야 할 소이가 여기에 있다.

이미 딸의 한 귀퉁이는 그늘에 잠겨 있고 땅에서 피어오르는 옅은 어둠으로 꽃은 짙은 빛으로 잎을 오므리기 시작했지만 피어 있던 꽃의 공간이 침묵과 심연으로 가라앉기까지의 보이지 않는 흐름은 얼마나 길고 오래될 것인가.

이제 울음을 감추려 하지 않는 아내에게 그는 무언가 위무의 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내에게는 다정한 말이 필요한 것이다. 그는 소년 같은 수줍음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입을 열었으나 아내는 어눌하게 새어 나오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아내는 그의 입에 바짝 귀를 갖다 대며 안타깝게 되물었다.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왔느냐구요?

그는 칠혹처럼 검은 머리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무너진 입을 반쯤 벌린 채 누워 있었다.

거울빛의 반사가 잠시, 천장으로 벽으로 재빠르게 움직이다가 마침내 유리컵에 머물고 밖의 빛으로 어둑신하게 가라앉은 정적 속에서, 물속에 담긴 틀니만이 홀로 무언가 말하려는 듯 밝고 명석하게 반짝거렸다.(202쪽)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이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방’에 누워 있는 화자는 아들의 죽음을 회상하고, 이웃집 아이가 늙은 아내에게 행하는 거울 장난을 묵묵히 지켜 볼 뿐이다. 틀니를 빼고 누워있는 ‘그’는 이웃집 아이와의 갈등에서 패배한 아내를 위로하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자 ‘그’는 죽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한다. 어둠에 잠긴 꽃밭을 바라보며 꽃이 피어 있던 공간에 대한 침묵과 심연을 느낀다. 또한 틀니를 빼어버린 입으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화자의 모습과 남편의 말을 듣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은 모두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서 있는 모습이다.²⁰⁾

19) 안숙원, 앞의 논문, pp.26~27.

20) 최현주, 「오정희 소설의 죽음 모티프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p.46.

죽음은 비본래적이든 혹은 본래적이든 간에 거부될 수 없는 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현존재의 확신에서 드러나는 확실성이라면, ‘현존재가 죽는다’는 자기 확실성은 진리이다. 피해 갈수 없다면, 그리고 압박해 있다면, 그것은 삶을 불안으로 도배하는 처절한 사건이 된다. 본래적인 죽음은 그렇게 현존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오정희의 「동경」을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존재론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일상적 세계와 탈일상적 세계 사이에서 비본래적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본래적 삶을 회복할 것인가 문제에서 이 작품에서는 비본래적 삶으로 일관한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첫째 일상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일상성은 죽음을 덮어버린다. 일상인들에게는 일어나지만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 즉 죽음이다. 죽음은 막연하게나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면서도 섬뜩하기에 일상인들은 우선 거기에서 도망가는 것이다. 하지만 도리어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존재가 죽음에 던져져있고 존재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순수한 사라짐 혹은 순수한 끝남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확고한 사실로 일상인들에게 나타난다.

작품 속에서 화자는 죽음의식이 팽배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거부하는 여러 행동들을 보여준다. 식사 전 산책, 틀니 닦기, 염색하기, 지팡이 은장식 닦기 등과 같이, 죽음과 노쇠함만이 되풀이되는 인물의 반복적 상황에 대해 반항의 행동을 보여줬지만 작품의 마지막에서는 또다시 죽음의 상황에 놓임으로써 화자의 행동은 좌절을 맞는다. 즉, 화자의 반항적인 행동은 죽음과 노쇠함만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 함몰되어 버린 것이다.

두 번째 공포에서는 우선 대개 일상인인 현존재가 죽음을 ‘공포’로 느끼고 거기에서 도망간다. 왜냐하면, 공포는 죽음을 사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삶을 다함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끝에 이르러, 일상적인 현존재는

마침내 자신의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한다. 자기 자신이 아직-아님으로써 죽음을 향해 살아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일상적인 현존재에게 갑자기 죽음이 닥쳐온다. 그것은 자신의 삶과 절대적으로 반대에 속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이다.

22년 전에 죽은 아들 ‘영로’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아픈 상처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타인들이 모두 아들처럼 보인다. 아내는 수도계량기 검침원이 죽은 아들의 모습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에게 시원한 물이라도 마시게 하고 싶다. 수도검침원 청년을 보고 죽은 아들 영로를 떠올리는 것은 아들에 대한 부모애인 동시에 죽은 자를 떠올리며 감지하게 되는 죽음의 그림자를 예감하는 행위이다. 아내가 죽은 아들을 자꾸 떠올리고 죽은 사람들의 생각에 잠기는 것은 추상적인 죽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또 아내는 맥을 만들면서 돌아가신 조부모의 흥몽을 기억하게 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내는 밀가루 반죽으로 수많은 맥을 만든다. 그러나 그럴수록 공포는 더해진다. 그리고 이웃집 계집애의 거울장난으로 아내의 공포감은 더욱더 심화된다.

세 번째로 살펴본 죽음의 상징에서 죽음은 비본래적이든 혹은 본래적이든 간에 거부될 수 없는 확실한 것으로 진리가 현존재의 확신에서 드러나는 확실성이라면, ‘현존재가 죽는다’는 자기 확실성은 진리이다. 피해 갈수 없다면, 그리고 임박해 있다면, 그것은 삶을 불안으로 도배하는 처절함이 된다. 본래적인 죽음은 그렇게 현존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화자는 이가 없어 ‘틀니’를 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맛이 주는 즐거움을 모른다. 아내 역시 미각을 상실하여 ‘간장’을 타는 일을 잊는다. 또 틀니 없이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불가능함을 의미하고, 실제로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또한 그의 틀니는 그가 곧 맞이하게 될 죽음의 상징이며 소멸해 가는 것, 늙어 가는 것, 죽어 가는 것을 상징한다.

또한 쓸모없어진 밀가루 반죽은 노쇠하여 고여 있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죽음에 다가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부풀어 오르는’ 밀가루는 기능을 다한 이(齒)와 같다. 이것은 조금씩 다가오는 죽음의 상황을 은유한 것이다. 그들의 느슨한 삶, 고여 있는 삶은 죽음의 문제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으로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오정희의 소설 「동경」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오정희 소설 속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존재론적 불안의식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지각이 인물들의 삶 속에 내재되어 스스로 예민하게 느끼고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사물의 존재와는 달리 자신의 존재 기능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므로 죽음은 인간 존재의 분석이 기도 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참고 문헌〉

- 오정희, 「동경」, 『제3세대 한국문학13』, 1985.
김용규, 『철학카페에서 문학읽기』, 웅진하우스, 2006.
김영민·이왕주, 『소설 속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2001.
박이문, 『문학과 철학이야기』, 살림, 2005.
소광희,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강의』, 문예출판사, 2003.
이기상,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살림, 2008.
발터 비멜, 신상희 역, 『하이데거』, 한길사, 1997.
김병익, 『세계에의 비극적 비전, 오정희 「동경」』, 동서문화사, 1983.
김치수, 「전율, 그리고 사랑」, 『유년의 뜰』, 문학과 지성사, 1981.
김 현, 「살의의 섬뜩한 아름다움」, 『불의 강』, 문학과 지성사, 1977.
성민엽, 「존재의 심연에의 응시」, 『바람의 녀』, 문학과 지성사, 1986.
신철하, 「성과 죽음의 고리」, 『현대문학』, 1987, 10.
오생근, 「허구적 삶과 비판적 인식」, 『현실의 논리와 비평』, 문학과 지성사, 1994.
백승미, 「오정희 소설의 자아 의식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9.
안숙원, 「오정희 단편소설 「동경」 연구」,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 2호, 2002.
이가원, 「오정희 소설의 인물 연구」, 명지대 문창과 박사논문, 2003.
이관표, 「하이데거에서의 죽음과 존재의 길」, 연세대 철학과 석사논문, 2004.
최현주, 「오정희 소설의 죽음 모티프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Abstract〉

A Study of Oh Jeong Hee's 「Dong Gyong」 through the philosophy of Heidegger

Sim Jae Ho

Heidegger, because there is a question the existence of its own existence 'Dasein' he says.

Dasein is similar with the main character in the novel, Oh.

Oh, a novel, 「Dong Gyong」 in the life of the hero no-essentially showing distinctly the 'ordinary', 'fear', 'Death of a symbol is divided by the review, the results shown below are consistent with the main characters' lives that no-essentially was found.

First, usually the second to them, out of fear that the phenomenon of death 'horror' feel to run away from there.

Seen as the third symbol of death or the death no-essentially between the original can not be denied that certain truths revealed in the assurance of certainty if the Dasein, is Dasein's dead certainty that he is the truth.

Oh, consistently appearing in the novel sense of existential anxiety Co., availability of human progress toward death is telling. 'All humans are going toward death,' the perception is embedded in the lives of the characters are keenly felt that the reaction was found. Eventually the presence of human beings, unlike other things, understanding that its presence feature death as in life, so this is because the analysis of the human being.

Keywords : Dasein, no-primarily, Death, Daily, Horror

이 논문은 2011년 1월 14일에 투고되었으며, 2011년 2월 9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1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